

# 오키나와 반환을 통해 살펴보는 오키나와 문학\*

- 『떠도는 류큐인』과 『칵테일 파티』를 중심으로 -

조경식\*\*  
happyset80@gmail.com

##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3. 『칵테일 파티』 작품 속 미군 문제 담론 |
| 2. 『떠도는 류큐인』의 복각과 본토 복귀 담론 | 4. 마치며                    |

주제어: 오키나와(Okinawa), 류큐(Ryukyu), 미군기지(US base), 떠도는 류큐인(Samayoeru ryuukyujin), 칵테일 파티(Cocktail Party)

## 1. 들어가며

1960년대의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로의 복귀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펼쳐진 시기였다. 전후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체결된 미일안전보장조약의 결과, (주권은 일본에 두고, 조차(租借)의 형식으로) 미국의 오키나와 지배가 합법화됨으로써 군용지 접수 및 기지 확장, 그리고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기지 사용을 위한 정치적 압력이 강화되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례로 1953년과 1957년에 미군정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토지수용령(土地收用令)은 오키나와 시민들로 하여금 ‘섬 전체 투쟁(島ぐるみ闘争)’에 나서게 하였고, 이는 결국 미군정의 지배에서 벗어나 일본 복귀를 주장하는 ‘본토복귀운동’으로 전개되기에 이른다. 1969년 사토니슨 회담으로 일본으로의 오키나와 반환은 결정되지만, 이는 오키나와 시민의 희망과는 달리 핵과 군사기지 모두를 오키나와에 잔류하는 방향으로 진행됨으로써 또 다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오키나와의 반환 결정은 히로쓰 가즈오(広津和郎)의 소설 『떠도는 류큐인(さまよへる琉球人)』의 복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작가 오시로 다쓰히로(大城立裕) 역시 본토와 오키나와의 새로운 관계설정을 위한 과정으로서 복각의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다.<sup>1)</sup> 『떠도는 류큐인』은

\* 이 연구성과는 2020년도 고려대학교 4단계 BK21 중일교육연구단의 참여학생으로서 작성한 것임.

\*\* 고려대학교 중일어문학과 박사과정

1926년 히로쓰 가즈오가 발표한 소설로 당시 오키나와의 현실을 잘 드러낸 작품이었는데, 소설이 발표된 1926년은 설탕 가격 폭락으로 오키나와가 어려움에 처하며, 소위 ‘소철지옥(ソテツ地獄)’이라고 불리던 시기였다. 이와 같은 경제난을 배경으로 소설 속의 등장인물 ‘떠도는 류큐인’ 미카에루 다미요(見返民世)는 도쿄에서 ‘내지인’ 주인공 H를 상대로 사기와 기만행위를 일삼는데, 이 내용을 문제 삼았던 ‘오키나와 청년동맹’의 항의를 받아들인 작가의 결정으로 지면에서 철회된 상태였다. 전시상태의 군국주의적 분위기에 역행하는 산문을 저술했던 작가의 이력과 이후의 사과문을 통해서 작품의 의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만, 발표 이 개월 만에 작품이 전격 철회됨으로써 당시 오키나와 문제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는 중단되어 버리고 만다. 이와 같은 철회를 통해 작품 내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갈등이 개인화되고, 결국 오키나와 문제는 미봉된 상태였다고 도미야마 이치로(富山一郎) 역시 언급한바 있으며,<sup>3)</sup>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는 작품이 지니는 “액추얼한 현실관의 무게”를 들며 당대의 상상력을 1970년대에 되살리는 것에서 복각의 의의를 설명하였다.<sup>4)</sup> 오에 겐자부로는 1965년 오키나와를 처음 방문한 이후 『오키나와 노트(沖繩ノート, 1970)』를 발표할 정도로 오키나와의 역사와 현실을 작품 속에서 민감하게 다루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떠도는 류큐인』의 복각문제에 진지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물론 본토 지식인의 도덕성과 윤리성의 증명 기준으로 오키나와에 대한 관심이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당시에 불거졌지만, 그만큼 오키나와의 본토 복귀를 둘러싼 담론 속에서 『떠도는 류큐인』의 복각문제가 진지하게 다루어졌음을 미루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떠도는 류큐인』과 함께 본문에서 다룰 오시로 다쓰히로(大城立裕)의 『각테일 파티(カクテル・パーティー, 1967)』는 오키나와 문단의 첫 번째 아쿠타가와(芥川)상 수상작으로 오키나와 반환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함께 고찰해 볼 수 있는 작품에 해당한다. 서두에서 언급했지만 1960년대는 오키나와의 ‘섬 전체 투쟁’이 격화되었던 시기였고, 미군에 의한 사건·사고가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던 가운데, 『각테일 파티』는 오키나와의 미군문제를 정면으로 다룸으로써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오키나와가 반환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미군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논쟁거리였는데, 본문에서 『각테일 파티』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조정민(2017) 『오키나와를 읽다-전후 오키나와 문학과 사상』2, p.33

2) 1920-30년대에 심각한 경제불황으로 주민을 먹여살려왔던 설탕의 가격이 폭락하고 흉작까지 겹쳐 기근이 일어나 사람들이 소철(蘇鐵) 식물로 끼니를 연명하던 소철지옥(ソテツ地獄)이 펼쳐졌다.

3) 도미야마 이치로, 심정명 역(2015) 『유착의 사상-「오키나와 문제」의 계보학과 새로운 사유의 방법』, pp.48-49

4) 조정민, 앞의 책, p.36

## 2. 『떠도는 류큐인』의 복각과 본토 복귀 담론

오키나와의 반환을 앞두고 본토 사이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다시 파악하고자 했던 시대적 요구는 『떠도는 류큐인』의 복각 논의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약 40년 전 본토인들이 바라보았던 오키나와에 대한 이미지와 수탈의 대상이었던 오키나와인들의 울분이 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데, 복각 당시의 시점에서는 미군정과 오키나와 사이의 관계로 대상이 바뀌었을 뿐, 억압과 수탈 관계로서의 본질은 작품속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떠도는 류큐인』을 통해 과거 본토-오키나와의 유사 식민지적 상황을 당시의 미군정-오키나와의 관계로 투사하여 읽어내고, 반환이후 지배와 억압의 관계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본토와의 새로운 관계설정을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복각 논의를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떠도는 류큐인』의 작품 속에서 오키나와는 어떻게 표상되었는지 살펴보겠다.

작품 속에서 류큐 출신인 미카에루는 도쿄를 돌아다니면 물건을 판매하는 행상인으로, 지인을 통해 주인공 H에게 넉살 좋게 접근하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H는 소설가답게 사람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하고 낯선 이의 불임성있는 접근을 마다하지 않기에, 미카에루의 다음과 같은 류큐 사정을 주의 깊게 듣는다.

류큐의 중산계급은 지금 거의 멸망 할 수밖에 없어요 사탕수수 지어도 팔리지 않아요 아니, 도매상이랑 내지의 자본주의가 협력하고 있어서 팔려 봤자 헐값이에요.(중략) 나하(那覇)의 세금이 도쿄보다 몇 갑절이나 비싸다고 하면 놀라시겠지요. 아주 말이 안 되는 세금을 징수당하는 겁니다.(중략) 규슈의 탄광생활이 그들에게는 멸망해 가는 류큐에 있는 것보다 극락으로 보이는 겁니다.<sup>5)</sup>

서두에서 간략하게 설명한 바, 미카에루가 도쿄에서 ‘떠도는 류큐인’인 된 것은 ‘소철지옥’이라는 오키나와의 경제적 궁핍에 근거한 것이었다. 당시 일본의 해외 식민지였던 타이완과 남양군도에서 일본 제당업 자본가들의 사탕수수 생산 카르텔이 형성되면서, 1920년을 기점으로 일본 국내 흑설탕 가격이 폭락하였고, 이는 곧 ‘오키나와 구제론’ 논의를 일으키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소철지옥’은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이 불러온 국가적 차원의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구제론’들은 일본전체로부터 고립된 오키나와 지역에 한정된 지역적 문제로 다룸으로써 오키나와를 대상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sup>6)</sup> 이와 같은 작품 속 ‘소철지

5) 히로쓰 가즈오, 심정명 역(2017) 『떠도는 류큐인』 『오키나와 문학의 이해』, p.91

옥' 문제의 상황은 오키나와 반환을 앞둔 시점에서 여전히 되풀이 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떠도는 류큐인』의 복각이 함의하는 바는 분명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서두에서 설명한 미군정의 '토지수용령' 및 미군범죄 문제 등의 제문제에 항의하며, 오키나와인들은 '섬 전체 투쟁'을 통한 일본으로의 복귀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했지만, 1969년 사토-니슨 회담의 기만적 결과물은 또 다른 형태의 '소철지옥'의 시작에 불과했다. 오키나와를 '본토수준으로 핵 없이' 반환할 것이라는 약속이 무시되고, 자위대와 미군을 포함한 군 시설의 확대와 전술핵 유지를 통해 오키나와의 일본 반환은 시민들로 하여금 미군정 시기와 다를 바 없는 고립감을 남겨주었다. 『떠도는 류큐인』 작품 속 '소철지옥' 시기의 일본정부가 오키나와를 단지 구제의 대상으로 대상화했던 것처럼, 반환이후 정부는 토지매입 등의 회유책을 동원하며 오키나와를 반환전과 변함없이 일본 내에서 고립시켜갔다.

서두에서 언급한대로 『떠도는 류큐인』은 '오키나와 청년동맹'의 항의로 44년간 철회상태였고, 문단의 논의를 거쳐 오키나와 반환의 목전에 이르러서야 복각되었다. 앞에서 오시로 다쓰히로, 오에 겐자부로 등이 언급한 복각의 시대적 필요성을 발견하기 위해 작품이 철회된 과정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당시 항의를 받았던 작품 속 내용으로, 주인공 H는 오키나와 출신자들의 사기와 기만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도쿠가와 시대부터 계속 박해를 받아 왔으니 다소 복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내지인에게 도덕을 지킬 필요는 없다는 반항심이 생긴다고 해서 무리도 아니기는 하겠군(중략) 실제로 오랫동안 박해를 받다 보면 박해자에게 신의를 지킬 필요가 없어진다 해도 무리는 아니다. 칭찬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동정이 가지 않는 이야기도 아니다.(중략) 만일 내가 이렇게 압박받는 위치에 있었다면 나 역시 압박자에게 신의나 도덕을 지킬 마음은 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7)

당시 오키나와를 정책적 구제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H의 이와 같은 이야기는 작품 속 오키나와인들의 내면적 결핍을 더욱 현실적으로 부각시키는데, '오키나와 청년동맹'은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 있는 오키나와인들의 무법적 행위에 주목하여 잡지에 항의서를 게재하기에 이른다. 항의서에서는 "이 작품 때문에 우리 현인(縣人)이 혹 오해를

6) '오키나와 구제론'으로서 1925년부터 제국의회에서 각종 건의안이 결의되지만 "식민지와 비슷하게 명명된 구제 대상으로서의 오키나와나라는 이름은 그 이름이 명명되거나 내세워질 때마다 영토획득의 폭력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예감시키게"되며, "구제의 법을 둘러싼 논의에서 보이는 것은 식민지와 국내의 어느 곳도 아닌 공백으로서의 오키나와가 식민지나 국내에 유사(擬似)적으로 동일화하는 사태라고 할 수 있다. 오키나와는 식민지도 국내도 아니면서 그 둘 모두이기도 하다"(도미야마 이치로, 손지연·김우자·송석원 역(2009)『폭력의 예감』, pp.331-336)

7) 히로쓰 가즈오, 앞의 책, pp.99-100

받을 우려도 약간 있지 않을까 짐작되어(중략) 만일 이 작품으로 현실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이 생길 경우 작가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sup>8)</sup>라며 오키나와를 구제할 당위성이 위협받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관동대지진 당시 표준어를 못해 조선인으로 오인되어 다수가 살해당했을 만큼 내지인에 의한 폭력적인 처우를 경험한 바,<sup>9)</sup> 차별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강한 우려를 표현한다.

현재 류큐 문제가 전국적인 흥미를 끌고 있다고 해서 일종의 광고 같은 책략을 부리는 비열한 저널리즘 정신을(중략) 그저 『떠도는 류큐인』이라는 제목 아래 내지에서든 흔히 있을 법한 한두 사람의 나쁜 소행에 짐짓 조건을 붙인 귀하의 의도, 귀하의 목적이 뭔가 있을까요? 이 작중 인물은 『떠도는 내지인』과 어떠한 차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중략) 언제 우리도 현 바깥에 일자리를 구하려 나가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현민 대중 일반의 문제인 동시에 이윽고 우리 자신 또한 위협할 중대한 문제입니다<sup>10)</sup>

항의문에서 ‘오키나와 청년동맹’은 현 바깥에서 일자리를 구해야 할 오키나와 출신자들에게 『떠도는 류큐인』이 규정할 수 있는 이미지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 도미야마 이치로는 ‘국가의 폭력을 사전에 뿌리치는 행위’로 해석하며, 청년동맹에 있어 오키나와는 단지 ‘오키나와 문제’로 수렴되지 않는 소철지옥에 각인된 삶이자, 사람들이 지역에서 떨어져 나가게끔 만든 국가의 폭력이 전제된다고 보았다.<sup>11)</sup> 이는 곧 오키나와 반환 후 일본 정부가 취했던 폭력적인 공용지법<sup>12)</sup>과 자위대 추가 배치 등의 정책과 맞물리며, 『떠도는 류큐인』 복각의 시의성에 다시금 주목하게끔 한다. 국가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청년동맹’에 의해 철회된 작품은, 다시 복각된 시점에서 국가적 폭력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오키나와를 정책적으로 ‘구제’한다는 국가 주도적 조치를 넘어, 오키나와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작품 『떠도는 류큐인』은 항의문 논쟁을 통한 작가의 철회 선언으로 발표 2개월 만에 모든 지면에서 사라지게 된다. 철회에 대한 히로쓰의 해명문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8) 위의 책, p.122  
 9) 도미야마 이치로, 손지연·김우자·송석원 역(2009)『폭력의 예감』, p.27  
 10) 히로쓰 가즈오, 앞의 책, p.123  
 11) 도미야마 이치로, 앞의 책, p.43  
 12) “이 법률에 따르면 미군지배 하에서 공용지(사실상은 군용지)로 사용해진 토지는 소유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복귀 후 5년 동안 공용지(군용지)로 사용할 수 있었다. 미군지배 시대의 포령·포고에 필적하는 악법이었다”(아라사키 모리테루, 정영신·미야우치 아키오 역(2008)『오키나와현대사』, p.75)

저는 여기까지 쓰면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극심한 생활고, 생존고가 제게 바짝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일개 소설가의 저런 감상에까지 신경이 곤두선다는 사실은(중략) 그만큼의 공상이나 여유조차 여러분께는 지금 허락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당면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경제적 파산에서 현인(縣人) 여러분을 구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sup>13)</sup>

해명문의 내용은 ‘오키나와 청년동맹’에 대한 사과와 함께 위에서 볼 수 있는 ‘생활고’, ‘생존고’, ‘경제적 파산’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전반적으로 현실적 생존의 위협에 대한 동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작품 속에서 작가 H가 오키나와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에 이르지 못한 채, 현실적 어려움에 공감하는 모습과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작품을 집필한 작가의 내밀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오키나와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기회는 빠르게 사그라들어 탈정치화 되고, 결국 진지한 토론도 진행되지 못한 채 봉합되어 버린다.

항의문 논쟁에 대해 아오노 스에키치는 “히로쓰가 오키나와 청년동맹에 대한 응답에 얽매 이는 것은 센티멘털리즘이고, 결과적으로 ‘떠도는 류큐인’이라는 류큐의 무산자들에게 문제를 한정한다”<sup>14)</sup>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다. 사실 히로쓰는 전쟁 중에도 군국주의에 저항하는 산문을 다수 발표한바 있고, 열차 탈선 사건이 사상 탄압으로 이어진 ‘마쓰카와(松川) 사건’<sup>15)</sup>에서 주도적으로 구명운동을 펼치며 사회적 약자층에 주목해온 모습을 통해 『떠도는 류큐인』을 집필한 의도는 짐작할 수 있는 바이다. 그러나 해명문을 통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사죄의 응답을 함으로써 ‘오키나와 문제’는 결국 등장인물 ‘미카에루’ 개인의 범죄로 좁혀져버렸다. 이와 같은 작품의 철회과정은 결국 본토로의 복귀에 앞서 오키나와 문제의 근원을 되짚어야 한다는 요구, 즉 『떠도는 류큐인』의 복각문제를 논의의 장으로 끌고 옴으로써 오키나와와 본토 사이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되짚어 봐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본토 반환을 앞둔 시점에 밝힌 오시로 다쓰히로(大城立裕)의 다음과 같은 소회를 통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오키나와 문제의 지난한 과정을 돌이켜 보게 된다.

13) 히로쓰 가즈오, 심정명 역(2016) 『오키나와 청년동맹 항의서-출자 「떠도는 류큐인」에 대하여』 『지구적 세계문학』 8호, p.223(조정민(2017) 『오키나와를 읽다』, p.23에서 재인용)

14) 도미야마 이치로, 앞의 책, p.36

15) 철도가 의도적으로 조작되어 탈선된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사회주의 계열 노조원들을 사건의 진범으로 기소하지만, 결국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은폐했던 무죄 증거가 드러나 관련자 전원 무죄선고를 받은 사건이다. 무죄 파기환송까지 15년이 걸린 본 사건에서 히로쓰 가즈오는 관련자들의 구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변호사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까지 열심이냐는 질문을 받자 ‘당신은 다른 사람이 받을 밝힌 걸 보고 아프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는 반문으로 크게 회자되었다.

오에 겐자부로가 어느 오키나와 르포에서 ‘다만 암담해서 머리를 숙일 뿐’이라고 글을 맺었는데 이것을 읽은 한 오키나와인이 ‘그런 식으로는 조금도 해결되지 않는다’며 항의 했다고 한다. 지금 그 말이 떠오르는 것을 보니,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지, 이 문제를 두고 우리는 수십 년을 고민해 왔던 것 같다<sup>16)</sup>

위에서 ‘그런 식으로는 조금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외침은 앞에서 살펴본 『떠도는 류큐인』의 과거 작품철회 과정에 그대로 대입해도 전혀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는데, 본토 복귀를 앞두고 오시로를 비롯한 오키나와인들이 느끼는 복잡한 심경이 잘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도미야마는 『떠도는 류큐인』의 주인공 H와 작가 히로쓰, 그리고 70년대 당시 본토 지식인들이 그저 반성과 침묵, 사죄를 통해 오키나와 문제를 ‘보편적인 코드’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이는 “1970년이라는 상황 속에 있던 아마도 지식인들의 원형이라고 할 만한 계통의 문제였다”고 밝히기도 하였다.<sup>17)</sup> 즉 『떠도는 류큐인』이 발표되었던 시기부터 현재까지 본토 지식인들 사이에는 오키나와를 소비하는 정형화된 모습이 있어왔고, 어떤 오키나와인의 ‘그런 식으로는 조금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외침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의미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안보비판의 모임’에 참여하며, 미군기지로 인한 핵과 전쟁의 상징이 된 오키나와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있던 오에의 다음과 같은 글을 통해 본토 지식인의 고민을 살펴볼 수 있다.

‘나는 왜 오키나와에 가는가?’라는 내면의 목소리는 ‘너는 왜 오키나와에 오는가?’라고 거절하는 오키나와의 목소리와 겹치며 언제나 나를 혼란에 빠뜨린다(중략) 그런 거절의 압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역사이며, 현재의 상황, 인간, 사물 그리고 미래의 모든 것이다. 압력의 핵심에는, 여러 차례 오키나와 여행으로 내가 좋아하게 된 사람들의 더 없는 친절함과 공존하는 단호한 거절이 있기에 참으로 난처하다. 나는 그들을 더 알고 싶어 오키나와에 간다. 하지만 더 깊이 아는 것이 온화하고도 확고하게 그들이 나를 거절하는 것임을 절망스럽지만 분명히 알게 된다<sup>18)</sup>

서두에서 『떠도는 류큐인』의 복각을 언급한 오에의 글 중, “오키나와에 대한 가해자로서 실재한다는 인식”과 “자기 상상력의 운동이 근원적인 모순을 품고 진행된다는 사실”을 인정하

16) 오시로 다쓰히로, 손지연 역(2016) 『복각을 둘러싼 감상』 『지구적 세계문학』 8호, p.240(조정민(2017) 『오키나와를 읽다』, p.33에서 재인용)

17) 도미야마 이치로, 앞의 책, pp.38-39

18) 오에 겐자부로, 이애숙 역(2012) 『오키나와 노트』, p.18

는 그의 고백은 본토 지식인으로서 “나는 왜 오키나와에 가는가?”라는 고민에 대한 나름의 성실한 대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3. 『카테일 파티』 작품 속 미군문제 담론

1967년에 발표된 오시로 다쓰히로(大城立裕)의 『카테일 파티(カクテル・パーティー)』는 제 57회 아쿠타가와(芥川)상 수상작으로 오키나와 문단의 첫 번째 아쿠타가와상이라는 상징성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이었던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는 “거대한 정치라는 퍼즐 속에 (내용을)전부 녹여내 버렸다”<sup>19)</sup>며 작품을 혹평했지만, 미국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에서 오키나와의 정치적 상황을 그려낸 부분이 동시기 시대상과 맞물리며 수상 선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추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키나와의 정치상황을 고려하여 선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심사평을 통해 오히려 심사위원들이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음을 읽어낼 수 있다며 오카모토 케이토쿠(岡本恵徳)는 지적하였다.<sup>20)</sup> 이렇게 오키나와 본토 반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던 시기와 작품의 수상이 맞물리면서 오시로는 오키나와의 정치적 현실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게 된다. 이후 오시로는 이렇게 아쿠타가와상 시상 주체인 본토의 문제의식에 따라 문학성이 정치적 효과의 뒤로 밀리는 것을 비판적으로 언급하며, 문학성의 말소에 우려의 뜻을 표명하기도 하였다.<sup>21)</sup> 그러나 작품이 발표된 1967년은 오키나와가 베트남 전쟁의 전초기지로 이용되며 반전운동과 본토 복귀 운동이 결합된 격렬한 저항과 파업투쟁이 일어난 시기였고, 필연적으로 작품의 정치성은 전면에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카테일 파티』는 작품 속에서 ‘페리 내항 110주년 기념행사’(1963년)를 배경으로 오키나와, 본토, 중국, 미국 출신의 인물을 통해 일본과 미군정의 경계에 있었던 오키나와의 복합적 상황을 묘사한 작품이다. 서두에서 살펴본 바, 1960년대는 오키나와의 일본 복귀를 희망하는 ‘본토복귀운동’이 치열하게 펼쳐졌는데, 이는 미군정의 토지 정책에 대한 불만 외에도 미군에 의해 끊임없이 발생했던 사건·사고의 영향도 컸기 때문이다. 『카테일 파티』의 핵심적인 내용이 전개되는 후반부 역시 미군 병사가 주인공의 딸에게 저지른 성범죄가 주요 동인이 된다. 즉 작품의 전반부는 오키나와 사회의 고위층에 위치한 주인공들이 파티에서 지적인 대화를

19) 岡本恵徳・高橋敏夫・本浜秀彦 編(2015)『沖繩文学選—日本文学のエッジからの問い』, p.130

20) 위의 책, p.130

21) 조정민, 앞의책, p.90

나누며 밝고 사교적인 세계를 보여주지만, 후반부의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각 국적의 인물들은 가면을 벗고 자신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게 된다.

작품 전반부의 배경이 되는 기지주택(베이스타운)은 미군에 의한 폭력적인 토지점수<sup>22)</sup>를 통해 건설된 곳으로, 이곳에서 주인공은 과거를 회상하며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다.

전쟁 전에는 오키나와 섬 어디를 가든 안전했지만 이젠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우스에서 일하는 메이드들은 어떻게? 수위들이 소총을 갖고 있어 무섭진 않을까?(중략) 외국인 아이가 버스 창문에 돌을 던졌다가 공기총을 발사했다든가 하는 이야기가 가끔 신문에 실린다. 그 아이들은 오키나와 사람들이 사는 거리를 맨손으로 거닐 때 공포를 느낀 적이 있을까?(중략) 병사는 오키나와 사람들만 사는 이 마을에서 공포감을 느낀 경험이 단 한 순간이라도 있을까?<sup>23)</sup>

작품의 시대적 배경인 1963년의 미군용지는 주일미군의 배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미군용지특조법’에 근거하여 기지의 안정적인 사용을 보장받고 있었다. 동시에 미군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조약에 근거한 ‘형사특별법’에 의해 미군의 시설 및 구역에서의 오키나와인 활동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었는데, 광대한 16개의 비행장 및 부속기지주택을 포함한 상당면적이 ‘형사특별법’으로 보호받았기 때문에 오키나와인들의 자유로운 활동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다. 상기의 독백을 통해 오키나와인들은 오히려 전후에 어디를 가든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반대로 외국인들이 오키나와인의 마을에서 공포를 느낀 적이 있을지 되묻고 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 본 작품이 발표된 1967년은 베트남 반전운동과 본토복귀운동이 격렬하게 이루어진 시기로, 오키나와인들은 일본 반환을 통해 미군기지의 반환과 자유로운 토지이용을 열망했다. 그러나 반환이후 일본정부는 앞에서 한차례 언급했던 ‘공용지법’이라는 악법을 제정함으로써 오키나와인들의 희망은 사라지게 된다.

작품의 전반부는 ‘나(私)’의 1인칭 시점으로 등장인물과 배경은 주인공의 주관적 관점에서 서술되며, 오키나와, 본토, 중국, 미국 출신 인물들과의 대화를 통해 다소 불안하지만 안정적인 오키나와 인텔리 계층의 생활상을 묘사한다. 그러나 작품은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인 오키나와의 실상을 폭로해 가고, 문학적 기법의 관점에서도 독특한 형식을 전개해간다. 먼저 2인칭 시점에서 서술자가 주인공을 ‘너(お前)’라고 지칭하며 사건과 대화가 진행되는데, 작품 내의 갈등이 폭발하는 후반부에서 오히려 2인칭의 시점으로 주인공을 설명함으로써 독자는 마치 주인공을 직접 바라보고 있는 듯 한 몰입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작품의 마지막, 핵심

22) “미군은 군용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토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귀환을 허락하지 않았고, 토지 사용료조차 지불하지 않았다”(아라사키 모리테루, 앞의책, p.33)

23) 오시로 다쓰히로·손지연 역 「카테일 파티」 『오시로 다쓰히로 문학선집』, p.45

등장인물 전원이 대화를 하는 주요 장면은 돌연 연극의 희곡식 구성을 취하면서, 대화 내용 자체에 집중하게끔 만들어 작품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작품의 전반부에서 각국을 대표하는 인텔리들은 각기 나름의 오키나와에 대한 친밀감을 표현하고 민감한 문제를 회피하며 대화를 이어가지만, 후반부에 전개되는 미군병사의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각자의 허울을 벗고 대화를 통해 맨얼굴을 드러내게 된다. 성폭행 사건을 덮으려는 미국인 밀러와 주인공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다.

밀러- 미쳤군요 친선의 논리라는 것을 모르는군요(중략) 중요도 마찬가지예요. 한편에서는 중요의 대결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것도 아주 많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친선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친선관계를 가능한 많이 만들려고 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중요해도 언젠가 친선을 맺는다는 희망을 갖는 거죠.

나- 가면이에요. 당신들은 그 친선이 마치 전부인 양 가면을 만들어요.

밀러- 가면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그 친선이 전부이길 바라는 소망이 담긴 진실입니다.

나- 일단은 훌륭한 논리군요. 그러나 당신은 상처를 입은 적이 없으니 그 논리에 아무런 파탄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번 상처를 입어보면 그 상처를 중요하게 되는 것도 진실입니다. 그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은 역시 가면의 논리지요. 나는 그 논리의 기만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어요(중략) 내가 고발하려는 것은 사실 미국인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각테일 파티 그 자체입니다<sup>24)</sup>

오키나와인이라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군전용 클럽의 ‘각테일 파티’에서 특별 혜택을 즐겨왔던 등장인물들은 소위 ‘친선의 논리’로 민감한 화제를 회피해 왔지만 미군 범죄 사건을 계기로 결국 파탄을 맞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전시 장교로 근무했던 주인공 ‘나’ 역시, 파티 멤버인 중국인 ‘쑤’에 대한 전쟁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가해자임을 드러내며, 본 작품을 통해 전쟁으로 인한 책임 문제에 좀 더 중층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파악 할 수 있다. 상기 대화의 마지막에 주인공인 일갈한 ‘각테일 파티’의 구성원들은 주인공의 법적 대응을 방해하며, 협박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 기만성을 드러내는데,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던 ‘미군용지특조법’과 ‘형사특별법’의 보호를 받으며 오키나와인을 고립시킨 미군기지 그 자체의 상징에 다름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각테일 파티’ 그 자체를 고발한다는 주인공의 외침은 1967년 당시 오키나와를 휩쓸고 있던 미국기지 철폐 운동과 본토 복귀 운동의 또 다른 외침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60년대 ‘본토복귀운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이슈로 ‘포고령144호’ 개정 문제가 있었

24) 위의 책, p.114

는데, 『카테일 파티』는 작품 속에서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소재로 다루며 현실성을 획득하고 있다.

군 재판은 영어로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강간사건이라는 것은 입증하기 매우 곤란한 사건이어서 승산이 없다(중략) 류큐정부 재판소는 군요원에 대해 증인 환문(喚問)의 권한을 갖지 않는다<sup>25)</sup>  
“공정하게 한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재판제도가 과연 공정한가요? 군사법정과 류큐정부 법정, 그리고 군인에 대한 증인 환문권을 갖지 못한 재판관...(중략) 설마 오해하신 건 아니겠지만 난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게다가 현 국제정세 속에서 이 오키나와에 미군기지가 불가피하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것과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sup>26)</sup>

점령자인 미국인 부녀자에 대한 폭행의 경우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미국인이 저지른 폭행사건의 경우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포고령144호’하의 오키나와가 작품에서 잘 묘사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법률이라는 근대적 장치도 결국 미군정과의 보완관계 속에서 엮이며 교묘하게 오키나와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깨달은 주인공은 결국 미군 병사를 고소하지만 험난한 앞날을 예상하며 이야기는 막을 내린다. 본 작품이 다룬 미군정에 의해 선포된 불합리한 포고령 및 시행령들이 일본내에서 주목을 이끌어낸 점은 오키나와가 반환되기까지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성과로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4. 마치며

지금까지 『떠도는 류큐인』과 『카테일 파티』를 중심으로 오키나와 반환의 흐름속에서 문학작품이 형성한 담론들을 살펴보았다. 1972년 오키나와 반환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미군기지 철폐운동’ 및 ‘본토 복귀운동’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카테일 파티』와 『떠도는 류큐인』을 고찰해 볼 때, 두 작품의 의의는 보다 분명해 진다고 볼 수 있다. ‘본토수준으로 핵 없이’ 반환되기를 희망했던 오키나와인들의 기대가 점점 멀어져가던 시점에서, 오키나와와 본토의 관계를 다시 되짚어보고, 새로운 관계설정을 위한 과정으로서 『떠도는 류큐인』의 복각 필요성이 문단에서 논의되었음은 명확한 부분이다. 1967년 아쿠타가와 수상작 『카테일 파티』 역시

25) 위의 책, p.77

26) 위의 책, pp.91-92



〈要旨〉

오키나와 반환을 통해 살펴보는 오키나와 문학  
- 『떠도는 류큐인』과 『카테일 파티』를 중심으로 -

조경식

1926년에 출간된 『떠도는 류큐인』은 ‘소철지옥’ 시기 오키나와인의 생활상을 간접적으로 전달해준 작품이었지만, ‘오키나와 청년동맹’의 항의로 공식매체에서 철회된 후, 오키나와 반환을 앞둔 1970년이 되어서야 다시 복각된다. 작품속에서 표현되는 오키나와의 경제적 어려움은 본토의 정책에서 기인한 것임을 주인공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1972년 본토로의 복귀를 앞둔 오키나와의 현실과 중첩되며 본토 일본인의 자각을 촉구하게끔 한다. ‘본토수준으로 핵 없이’ 반환되기를 희망했던 오키나와인들의 기대가 점점 열려져가던 시점에서, 오키나와와 본토의 관계를 다시 되짚어보고, 새로운 관계설정을 위한 과정으로서 복각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음은 명확한 부분이다. 1967년 발표된 『카테일 파티』 또한 오키나와 반환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흐름 속에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오키나와 문단 최초의 아쿠타가와상 수상작인 본 작품은 미군에 의한 성폭력 문제를 주요 소재로 다루었는데, 동시기의 진행된 반전 운동과 본토 복귀 운동의 맥락 속에서 함께 다룰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작품 속에서 함께 다루고 있는 미군의 영토 점유 문제와 불합리한 미군 재판 과정 등은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며, 미군기지 문제를 공론화하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 1972년에 이루어진 오키나와 반환은 결국 오키나와인들이 요구했던 미군기지 축소 및 핵무기 철거에 관해 어떤 진전도 이루어내지 못했지만, 『떠도는 류큐인』과 『카테일 파티』는 반환 과정에서 파생된 담론의 일부분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Okinawan literature to consider through return to Okinawa

Cho, Kyung-Sik

『Samayoeru ryuukyujin』, published in 1926, was a work that indirectly conveyed the life of Okinawans during the period of ‘Sotetsu Hell’, but it wasn’t until 1970, before returning to Okinawa after it was withdrawn from the official media in protest of the ‘Okinawa Youth Alliance’. It is reprinted again. The protagonist explains that Okinawa’s economic difficulties expressed in the work are due to the policy of the mainland, which overlaps with the reality of Okinawa, which is about to return to the mainland in 1972, and calls for the awareness of the mainland Japanese. It is clear that at a time when the expectations of the Okinawans who wished to be returned to the “mainland level without nuclear weapons” were gradually fading, the need for reprinting as a process for establishing a new relationship was discussed again by revie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Okinawa and the mainland. The 『Cocktail Party』 announced in 1967 also needs to be considered in the flow of historical events of return to Okinawa. This work, the first Akutagawa Prize-winning work in the Okinawa Paragraph, deals with the issue of sexual violence by the US military as its main subject, and can be dealt with in the context of the anti-war movement and the movement to return to the mainland during the same period. In particular, the issue of the US military’s territorial occupation and the unreasonable US military trial process, which are dealt with in the work, attracts political attention and results in public debate on the issue of US military bases. The return to Okinawa in 1972 ultimately failed to make any progress regarding the reduction of US military bases and the removal of nuclear weapons, which the Okinawans demanded. However, it can be seen that 『Samayoeru ryuukyujin』 and 『Cocktail Party』 formed part of the discourse derived from the process of return.